

numbers 제 28호



주요 내용 : 2019년 넘버즈 Top 7

2019. 12. 27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홈페이지 | www.mhdata.or.kr

E-mail | mhdata@mhdata.or.kr

전화 | 02.322.0726



2019, [넘버즈] Top7

다사다난했던 2019년 한 해가 마지막 한 주를 남기고 있다. 올해는 목회데이터연구소가 출범하여 지난 주까지 27호를 발행하며 숨가쁘게 달려왔다. 한국 교회를 둘러싼 외부 환경, 또 한국 교회의 여러 이슈에 대해 통계적 자료를 중심으로 다뤄왔는데, 목회자들이 설교 준비를 하거나,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소망한다.

이번 제 28호는 지금까지 발행한 27호 리포트 주제 중 독자의 반응이 뜨거웠던 내용 7개를 추려 각 주제별로 연구소의 의견을 담아서 정리해 보았다.

- 1 인구 절벽
- 2 대한민국은
갈등 공화국
- 3 한국인, 1일
37명 자살
- 4 한국인 행복도, '돈'에
과도하게 영향받고 있다!
- 5 하루 13명,
술 때문에 죽는다
- 6 위기의 크리스천 대학생
- 7 당신은
'꼰대'입니까?

1

인구 절벽(제 1호)

- 우리는 한국 교회를 둘러싼 외부 환경 변수 중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요인으로 인구 문제를 꼽는다. 다음 세대의 경우, 전도를 안해서 교회 학생수가 줄어드는 것보다 해당 연령대 절대 인구가 줄어들어 교회 학생수가 줄어드는게 더 크다는 이야기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5.7%가 되고, 2025년에는 20.3%로 예상돼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전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이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래추계인구를 보면, 한 세대 뒤인 2050년에는 14세 이하 유소년 비율이 9%, 65세 이상 노인이 40%로 예상돼, 유소년 1명과 65세 이상 노인 4.4명이 함께 사는 나라가 된다. 이러한 인구 변화 속에서 한국 교회, 그리고 개교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에 대한 대응, 교회내 노인 인구가 급증하게 될텐데 이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지 전략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그림] 연도별 합계 출산율 (명)



1981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18

*자료 출처 통계청, 2018년 인구 동향 조사 출생·사망 통계 잠정 결과
**합계 출산율: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수

[표] 연도별 출생아수 (단위, 1,000명)

연도	출생아수	년간 감소율
1981	867	
1990	650	-25%
2000	640	-1.5%
2010	470	-27%
2018	327	-30%

*자료 출처: 통계청, 2018년 인구 동향 조사 출생·사망 통계 잠정 결과

● 미혼 여성 결혼 의향률 45%

[그림] 미혼 남녀(20~44세) 결혼 의향 "있다" (%)



* 자료 출처: 보건사회연구원,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 조사, 전국 미혼 남녀(20~44세) 2,464명

● 인구 절벽의 영향

- 내년(2020년)부터 대학 진학자보다 입학 정원이 많아지는 역전 현상 나타남(교육부,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 2017)
- 2021년도 사립대 38곳 폐교 및 대규모 미달 예상(교육부, 국회설명자료집, 2018.09)
- 2038년까지 전국 대학의 40%(약133개)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조선일보, 2019.06.04)
- 올해(2019년)부터 생산연령인구 감소 시작(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7~2067)

2 대한민국은 갈등 공화국(제 2호)

- 한국 교회는 이념적으로 보수성향의 고연령·중직자 층과 진보 성향의 저연령·일반성도 층으로 나뉘어 교회 밖 사회와 동일하게 이념적 갈등이 심각한 상태에 있다. 개신교인 중 자신이 접촉한 혐오 표현 중 정치적 반대자에게서 들은 비율이 54%나 되고, 교회 내에서 목사·교역자에게서 혐오 표현을 들은 비율이 67%나 된다는 것은 한국 교회에 이념적 갈등이 이미 만연해 있다는 증거이다(넘버즈 제19호 참조). 종교사회학자 이원규 교수(감신대)는 종교의 역할에 대해 “종교의 사회적 기능은 보수와 진보의 이념 논쟁에서 벗어난 ‘사회 통합의 기능’과 정치가 사회에 희망을 주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하는 ‘예언자적 기능’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 사회는 심각한 갈등으로 인해 갈등 관리 비용이 무려 연간 246조 원에 달하고 있다(서울경제, 2019.01.20). 이처럼 사회 통합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데, 한국 교회가 갈등의 당사자가 아닌 통합의 주체로서 나서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한국 교회 전 교단을 망라한 리더십들이 함께 기도하고 고민해야 할 것이다.

● 한국은 현재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매우 심한 상태에 놓여 있음

[그림] 사회 갈등 관련 주요 통계 자료



● 사회 통합을 위한 중심적 역할, 종교 단체(4%) 기대 매우 낮음

[그림] 사회통합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집단(1+2순위) (%)



*자료출처 : 한국행정연구원, 2018년 사회통합실태조사, 2018.9. 성인남녀 8000명, 면대면조사

3 한국인, 1일 37명 자살(제 16호)

-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세계 최고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넘버즈는 자살률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았다. 우선 사망 원인 중 10대~30대까지의 사망 원인이 1위가 자살인데, 특히 20대 사망자의 무려 절반이 자살로 죽는다는 점, 60대 이후 남자 노인의 경우 자살률이 급격히 상승한다는 점, 자살자 유가족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 자살자 유가족의 자살 위험률이 일반인보다 8배 이상 높다는 점 등을 분석해 보았다. 교회에서도 심심치 않게 자살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교회 차원에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자살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단 자살자가 발생하면, 유가족에 대한 특별한 돌봄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 10-30대 젊은층, 자살이 사망 원인 1위

[표] 한국인의 사망원인 순위 (연령별, 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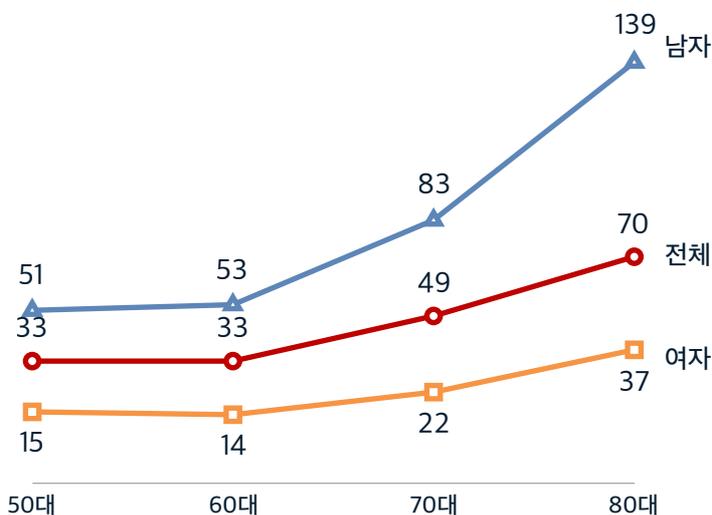
(%)

순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1위	자살(36%)	자살(47%)	자살(39%)			
2위				자살(21%)		
3위					자살(10%)	
4위						자살(5%)

*자료 출처: 통계청, '2018년 사망 원인 통계' 2019.09.24. ** 표 안의 %는 각 연령대의 총사망자 중 자살자 비율

●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살률 급격히 올라감

[그림] 성·연령별 자살률(2018년) (%)



*자료 출처: 통계청, '2018년 사망 원인 통계' 2019.09.24.

[그림] 자살 유가족 자살 위험률

일반인 대비

전체 평균 → **8.3배**

자살자가 남편인 경우 → **16배**

자살자가 아내인 경우 → **46배**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자살 유가족 지원 체계 확립을 위한 기초 연구', 서울대학교병원, 2016.11, 보건복지부 관련 보도자료(2017.08.04). (매년 8만 명, 처음 돌아본 자살 유가족의 삶)

4

한국인 행복도, '돈'에 과도하게 영향 받고 있다!(제 15호)

-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OECD 36개국 중 30위로 하위권에 속해 있다(유엔 SDSN, '2019세계행복보고서', 2019.03.20). 올해 6월, 동아일보에서 발표한 한국인의 주관적 행복도는 100점 만점 중 56점으로 2015년 처음 조사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이다. 세계 공통적으로 소득이 높으면 행복 지수가 높은 경향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문제는 행복 지수가 소득 수준에 과도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이렇다 보니 자연 행복 취약층이 발생하게 되는데, 저소득·저학력·무직이나 단순 노무종사자들에게서 나타난다. 이들은 현재 평균 보다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미래도 희망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무려 우리 국민 23%나 된다(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포럼'한국인의행복과행복요인'보고서, 2018년11월). 교회는 '돈'이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현실에서 예배, 신앙 훈련 외에 여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성도들이 '돈'보다는 자기 존재의 목적을 추구하는 데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한편으로 교회 내 행복 취약층에 대한 더 세심한 돌봄이 어느 때 보다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행복 취약층은 우리 국민의 23% 정도로 4명 중 1명 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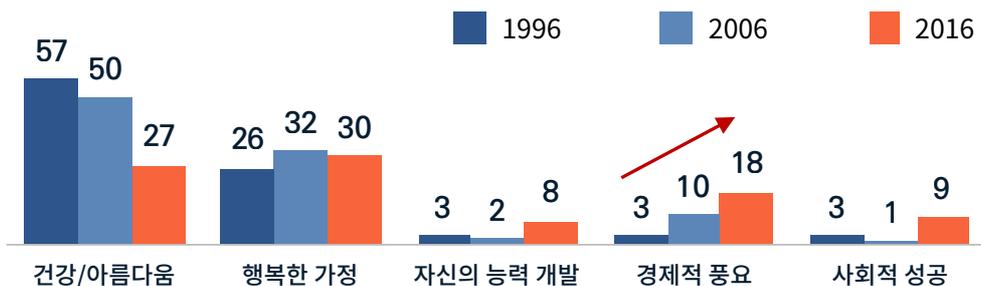
[그림] 행복/불행 집단 구분(시기별 행복감에 따른 분류)



*자료 출처: 조병구, 이용수, 김옥. 국민행복지표 개발 연구, <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한국인의 행복과 행복 요인'보고서>, 2018년 11월 (이용수 KDI 경제정보센터 자료개발 실장).

●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돈'이 10년 사이에 6배 상승함

[그림]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추이(1996년 ~ 2016년, 상위 5위)



*자료 출처: 문화체육관광부/원지코리아컨설팅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 추이 및 전망 연구', 2017.12.22

**조사 개요: 전국민 5,000명,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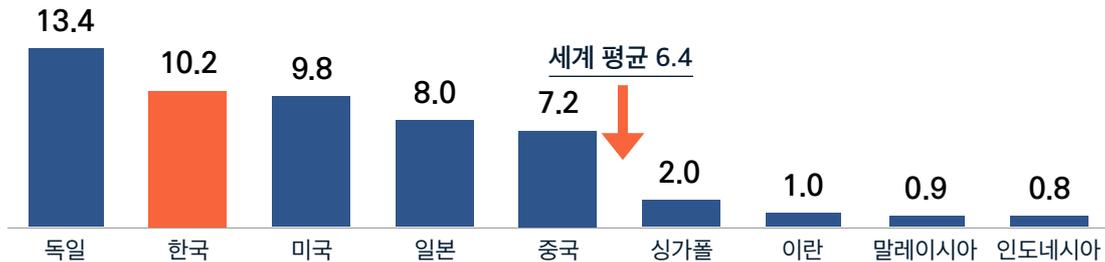
5 하루 13명, 술 때문에 죽는다(제 7호)

- 한국은 현재 아시아에서 가장 술 소비량이 많은 나라 중 하나이며, 세계적으로도 상위권에 속해 있다. 국민 1인당 알코올 섭취량이 연간 10.2리터인데 이는 1주일에 소주 5.5병을 1년 동안 꼬박 마시는 양이다. 정말 술을 많이 마시는 민족이다. 올해 발생한 사건 중 유명 연예인, 언론인의 성폭행, 몰카 등 성범죄의 언론 보도를 접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바로 그들이 모두 음주 상태였다는 점이다. 한국인은 술 때문에 하루에 13명씩 죽는다. 강력범죄는 30% 넘게 음주 상태에서 발생하고 자살·자해자의 42%가 음주와 관련되어 있다. 음주가 죄냐 아니냐를 떠나 음주로 인해 자신과 가족 그리고 사회가 입는 폐해가 크다는 것은 아래 자료에서 보듯이 명백하다. 이에 대한 교회의 건전한 지도가 필요한데, 특히 청소년과 여성의 음주가 늘고 있는 추세여서 중고등부, 대학·청년부를 대상으로 한 지도와 교육이 더욱 필요하다.

● 한국의 술 소비, 아시아에서 최고 수준

[그림] 주요 국가별 연간 1인당 알코올 섭취량(2015-2017, 3년 간 평균)

(리터)



*자료 출처: WHO(세계보건기구), '술과 건강에 대한 국제 현황 보고서 2018'
 조선일보, "여보 이거 알아? 한국남자 12%가 술 때문에 죽는다" 2018.10.0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04/2018100400304.html
 **주류 중에서 순수한 알코올 분량만 빼내어 계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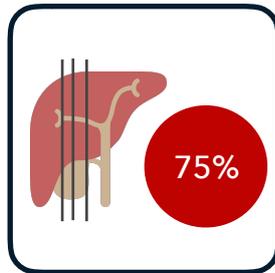
● 음주 폐해의 심각성(술로 인한 사망 비율)

● 알코올 관련 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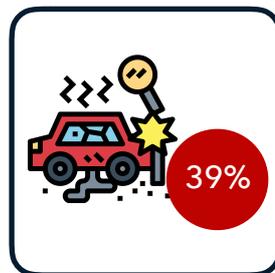
*자료 출처: 통계청, '2017 사망 원인 통계'

● 간경변 사망



*자료 출처: WHO(세계보건기구), '술과 건강에 대한 국제 현황 보고서', 2016년 기준, 조선일보, "여보 이거 알아? 한국남자 12%가 술 때문에 죽는다" 2018.10.0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04/2018100400304.html

● 교통사고 사망



● 자살, 자해 손상 환자



*자료 출처: 도로교통공단(2018), TAAS교통 사고분석시스템; 대검찰청 2017; 질병관리본부(2018) 손상 유형 및 원인 통계; 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 보건복지부 <음주폐해예방 실행 계획>, 2018.11

6 위기의 크리스천 대학생(제6호)

- 2017년 기준 대학생 중 크리스천 비율은 15%이다. 이는 2012년 17%에서 2%포인트 하락된 수치이다. 다른 종교는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했는데 개신교만 하락했다(가톨릭 7%→8%, 불교 9%→9%). 대학생들의 개신교 이탈이유는 비도덕성, 배타적 등 교회의 부정적 요인이 58%, 신앙적 회의 등 기타 요인이 42%로 부정적 요인이 더 크다. 또 한가지 대학생 관련 주목할 점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신천지 등의 이단 득세이다. 실제로 개신교 대학생의 42%가 이단 접촉 경험이 있고, 그 중 11%가 이단에서 활동과 교육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신천지가 64%나 되었다. 매우 위태로운 상태에서 크리스천 대학생들이 캠퍼스 생활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대학생과 관계에서는 '소통'이 중요하다. 그들을 대하는 목회자와 교회의 태도는 2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 첫째는 '권위주의적 태도', 둘째는 '무관심'이다. 이들을 교회의 일원으로 존중하며 참여하게 하고 문화선교적 접근을 통해 이들과 '소통'하는 것이 대학생 목회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 대학생, 개신교 이탈을 5년 사이 두 배 가량 증가

[그림] 교회를 다닌 경험(비개신교인 대상) (%)

(%)

[그림] 개신교 이탈 이유(1순위)



* 자료 출처: 학원복음화협의회 <청년트렌드리포트> (전국 대학생생활 및 의식조사, 1200명, 대면조사), 2017.08

● 개신교 대학생, 이단 접촉 경험: 42%

[그림] 이단 포교 받은 경험 (개신교 대학생) (%)

[그림] 이단에서 활동/교육 받은 경험(이단 접촉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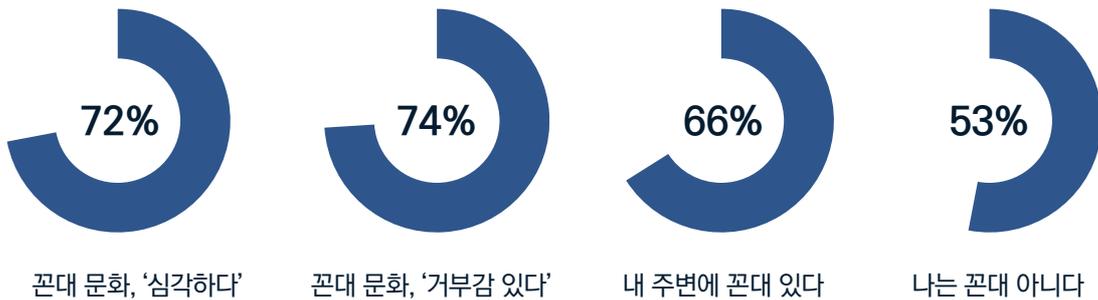
* 자료 출처: 학원복음화협의회 <청년트렌드리포트> (전국 대학생생활 및 의식조사, 1200명, 대면조사), 2017.08

7

당신은 ‘꼰대’입니까?(2019 대한민국 트렌드, 제 2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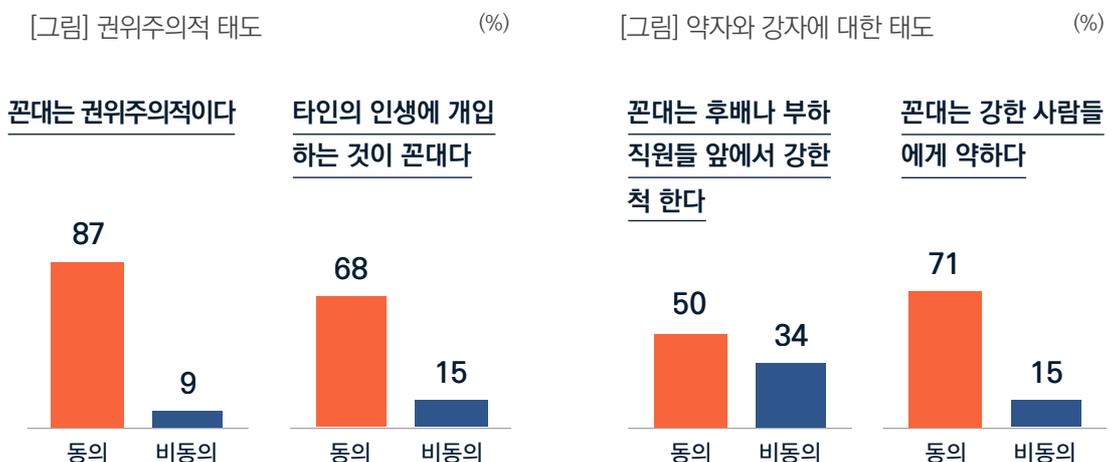
- ‘꼰대’라는 말은 본래 아버지나 교사 등 나이 많은 남자를 가리키는 ‘은어’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시대의 변화를 좇지 못하고 자신의 과거 경험만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여 남에게 강요하는 사람, 권위주의적 태도로 쓸데 없이 오지랖 넓게 남의 인생에 참견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로 변형되었다. 오늘날 꼰대 문화는 세대 간의 단절과 갈등을 유발하고 조직 분위기를 깨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고령화가 진행 중인 교회 역시 꼰대 현상을 피해갈 수 없다. ‘한국 교회의 미래는 ‘90년생’이 얼마나 교회에 남아주느냐에 달려있다’는 말이 있다. 그들과 소통하려면 꼰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꼰대 문화는 세대 갈등의 직접적 원인이 된다. 세대 간 소통을 위한 이벤트를 열어 격의없이 소통하는 방법, 중직자들을 대상으로 ‘꼰대 자가 진단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세대 간 소통을 높이려는 시도가 중요할 것이다.

● 꼰대 문화, 심각하다,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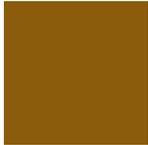


*자료 출처 : 두잇서베이(<https://dooit.tistory.com/629>), '꼰대 문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9. 7

● ‘꼰대’의 특징, 비굴한 권위주의적!



*자료 출처 : 트렌드모니터(www.trendmonitor.co.kr), '2018 꼰대 관련 인식조사', 2018. 3



언론 보도 기사 및 큐레이션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20대 남성 정치의식 분석](#)

한국일보_2019.12.26

“알수 없는 ‘이남자’ 마음… 쏟아지는 정치권 러브콜”



[40대 니트족\(무위도식층\) 2000년 이후 500% 급증](#)

조선일보_2019.12.26

“노부모에 얹혀사는 40대 니트족 20만 명”



[2018년 기준 중·장년층 행정통계 결과](#)

경향신문_2019.12.24

“소득 6.8% 늘 때 빛은 8% 증가 ‘울고 싶은 중·장년’”



[부동산에 대한 인식](#)

매일경제_2019.12.19

“로도 당첨되면...응답자 35% ‘서울 아파트 산다’”



[연말연시 폭음 주의](#)

세계일보_2019.12.26

“술만 먹으면 ‘블랙아웃’... 연말연시 잦은 폭음 주의해야!”



[국민 3명 중 1명은 암에 걸린다](#)

동아일보_2019_12.25

“평생 3명중 1명은 걸리는 암... 5년이상 생존 첫 100만 명 넘었다”



[합계 출산율 최저, 관악구](#)

조선일보_2019.12.23

“2030비율 전국 최고인 관악구, 출산율은 0.5명대 꼴찌”

스토리가 있는 기사



[편가르기 시대의 비극](#)

조선일보_2019.12.24

“너는 어느 편이냐’ 물음에 대하여”



[누구나 함께 사는 ‘화목하게 하는 도시’를 위해](#)

조선일보_2019.12.20

“공원과 스타벅스의 차이”

역대 주간 리포트 주요 내용

- 제 1호 | 인구 절벽, 그리고 개신교 인구 변화
- 제 2호 | 대한민국은 갈등 공화국(사회적 신뢰도, 갈등지수) | 종교 스윙칭
- 제 3호 | 모바일 시대가 온다(개신교인 미디어 이용 실태) | 청년층 운세보기 | 황혼 이혼
- 제 4호 | 나홀로 Life, 나는 혼자여도 좋다 | 함께 일하고 싶은 리더
- 제 5호 | 다문화 가족,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다(이주 여성 실태) | 북한 비핵화 인식
- 제 6호 | 위기의 크리스천 대학생(대학생 종교 실태) | 불법 촬영(몰카) 실태
- 제 7호 | 하루 13명, 술 때문에 죽는다(음주실태) | 청년 취업 실태
- 제 8호 | 여름휴가, 어떻게 보내십니까(교회 수련회 통계) | 남성 육아 휴직
- 제 9호 | 유튜브 홀릭 | 한일 분쟁
- 제 10호 | 흡연, 성인 남성 하루 100명 죽는다 | 55세 이상 고령층 취업 희망자
- 제 11호 | 크리스천 4명 중 1명, 교회 안 나간다 | 한국인, 정신·심리 관련 조사
- 제 12호 | 북한이탈주민, 연 가구 소득 2,000만 원 미만 40% | 2019 대한민국 영향력 있는 인물 순위
- 제 13호 | 추석, 즐겁지만 여성에게는 힘든 명절, 89% | 2040 아빠 육아경험, 고령화 통계
- 제 14호 | 한국인, 인간관계를 축소하고 있다 | 합계 출산율, 전국 초중생 방과후 학원 이용 실태
- 제 15호 | 한국인 행복도, '돈'에 과도하게 영향받고 있다 | 임금 근로자 연봉 상하위 격차 14.4배
- 제 16호 | 한국인 1일 37명 자살 | 우리나라 기부 참여율 40%(최근 1년간)
- 제 17호 | 장애인, 문화 활동 거의 못하고 있다 | 한국 부자 보고서 분석
- 제 18호 | 장애인 실태 2, '장애인 근로자, 고용 기업의 만족도 높다!' | 미국 크리스천의 담임 목사 인식 조사, 한국 국가 경쟁력 순위
- 제 19호 | 한국 사회 혐오, 심각하다 96% | 100세 시대 인식조사
- 제 20호 | 특별판(1-19호) 종합 정리
- 제 21호 | 개신교인, 전광훈 목사 긍정적 평가 13% | 한국 사회 공정성 평가조사
- 제 22호 | 당신은 '꼰대' 입니까? | 문재인 대통령 임기 반환점, 주요 여론조사 통계
- 제 23호 | 학벌 중심 사회, 국민 절반 가까이 학력 콤플렉스 '느낀 적 있다' | 평생직장 인식 변화, 우리나라 커피 소비 인식 조사 결과
- 제 24호 | 가족 호칭, '가부장 문화가 반영됐다' 72% | 한국인이 좋아하는 인물편(분야별)
- 제 25호 | 한국인의 결혼 · 가정관 빠르게 변하고 있다 | 한국인이 좋아하는 브랜드(일반 국민 vs 개신교인 비교), 우리 국민 절반은 '나는 가난하다' 생각한다)
- 제 26호 | 개취를 아십니까? | 전세계 기독교 청년의 교회 인식 조사, 한국인의 기대 수명
- 제 27호 | 한국인의 기부, 불투명성이 발목 잡는다! | 2019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 조사 결과, 1인당 노동소득과 소비 간 비교

목회데이터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가 17 헌빌딩 2층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후원

후원 교회 |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백주년기념교회 서현교회 소망교회
송학대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오륜교회 이룸교회 한목회
한소망교회 (가나다순)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알파코리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장로회신학대학교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빛누리 (재)CBS,

후원 기업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동광에스아이 (주)바이텍테크놀로지
및 개인 (사)새길과새일 (주)셀파 C&C (주)시스코프 (사)사단법인아시아미션
(주)예종세무법인 제이제이경제연구소 (주)참튼건강과학 (주)하츠
한국피스메이커 남성태 박우빈 이인성 이춘봉 인태근 최은아
(기관, 개인 가나다순)

후원 방법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후원 교회, 기관, 개인은 홈페이지에서 게시하고 있습니다.)

문의 : 02-322-0726,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 링크 → [클릭 하기](#)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원장)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김준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연구원 | jy0113@mhdata.or.kr